

# ‘미래차·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장 정책주도·활기매력 도시 자리매김

## 강기정 광주시장

“올 한해 응축된 ‘광주의 힘’ 폭발”  
돌봄·의료 서비스 전국 표준 제시  
복합쇼핑몰 조성·Y프로젝트 순항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송·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은 응축된 ‘광주의 힘’이 폭발한 한 해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더 살기 좋은 광주 대표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정책이 됐다고 자평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과 ‘24시 공공 심야어린이병원’은 돌봄과 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표준을 제시했다. 또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손자녀 가족 돌봄미’, ‘산단근로자 아침밥 제공’ 사업은 소소하지만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사회 모델로 확산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는 배달앱 중개 수수료 제한 입법 요구와 함께 공공배달앱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공직자의 창의성과 정책의 성과들은 ‘국회, 광주의 날’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정책이 되는 과정을 확인했고, 공공기관도 ‘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지자체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변화와 시민행복 혁신의 주제로 발돋움함으로써 광주는 시민행복 증진과 정책주도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더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통해 기회의 그릇이 커졌다고 밝혔다.

미래차국가산단 유치와 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 기반을 확장했고, 반도체와 창업 생태계 강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

국가AI데이터센터는 2000여 건의 기업과제를 지원했고, 76종의 다양한 장비를 통해 288개 기업과 시민 5432명의 실증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252개의 AI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맺는 등 명실상부 ‘AI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했고, 광주대표기업이 ‘CES 2025’에서 최고 혁신상을 비롯한 5개 혁신상을 받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도 올해 비수도권 최초로 세계적 반도체 팹리스 기업 유치에 성공, 내년이면 광주의 이름이 붙은 반도체 칩이 설계되고, 생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산업 전주기 생태계’가 열리게 됐다.

AI, 반도체,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5000억 창업펀드’의 목표액 조기 달성, 실증공간 도시 전역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80여 곳으로 확대, ‘창업스테이션’과 같은 인프라 구축 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조성 순항, 광주비엔날레와 파빌리온을 통한 국제 문화예술도시 위상 강화,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호수생태원 제1호 지방정원 지정, 24개 도시공원 조성 추진,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 등을 통해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의무화, 일률적 건축물 높이규제 해제 및 중점 경관관리지역 확대에 이어,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상업지역 상가면적 의무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했다.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2단계 공사의 본격 착공, 새롭게 추진할 ‘광천-상무선’을 통한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소와 소순환선 연결 구축, ‘대자보 도시 프로젝트’ 본격 추진 등으로 광주의 도시공간은 점점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 이제 오늘의 광주는 내일의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광주는 이름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전남 국립의대 통합 합의 큰 성과 SOC 5조4천억원 신규사업 확장

## 김영록 전남도지사

예산 13조원…도민 소득 역대 최고  
국토균형발전 지방소멸 극복 노력  
“전남미래 100년 위한 교두보 마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핵심 도정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을사년 ‘더 위대한 전라남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올해 핵심 도정 성과로 2년 연속 9조 원 국고예산 달성을 바탕으로 한 △전남국립의대 통합 합의 △SOC 등 5조4000억 원 신규사업 확보 등 전남 미래 100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전남도 예산은 지난 2018년 7조5000억 원에서 6년 만에 72% 상승한 13조 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국고예산 역시 2년 연속 9조 원을 넘어서며 도민 소득도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남도는 올 한해 첨단전략산업, 관광·문화 분야, 농수축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먼저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올해 기회발전특구에 5개 산업, 125만 평이 지정됐다.

이와 함께 화순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전남도는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착수 △미국 뉴욕 맨해튼에 전남정원 조성 등을 통해 세계에 전남의 매력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수축산업 분야로는 △버섯구피해 등 농업재해 인정 2604억원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준공 △스마트 축산단지 공모 선정 등을 통해 첨단 농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성과를 올렸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 연구용역 착수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안전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전남도는 지난 7월 788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중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한우농가 사육값 상승분의 50% 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확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상향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삶에 안정을 선사했다.

이밖에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4개소 추가 선정 △고향사랑기부금 2년 연속 100억 원 돌파 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바탕으로 한 지방소멸 극복에도 박차를 가했다.

전남도는 특히 주요 현안이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경우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진을 위한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본궤도에 오른 만큼 전남도 또한 마지막까지 도정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올 한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속에서도 온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대도와 전남 행복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며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고 동행하는 글로벌 전남, ‘더 위대한 전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인의 잠재력과 결연한 도전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앞에 놓인 위기는 더 큰 기회와 희망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200만 도민과 함께 ‘OK! Now Jeonnam’, 명실상부한 전남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김흥탁의 Branding Class 3기모집

###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모집 인원]** 00명 내외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강의 기간]** 2025년 3월10일 개강-5월26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접수 기간]** 2025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수강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의회/공공기관 등 홍보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강사 이력]** Creative Solutionist 김흥탁

-Founder /2kg\_Creative Solution Lab

-Chief Creative Officer / Paulus\_Creative Agency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Collective\_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Adfest

-전 Chief Content Officer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전 Visiti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전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 위원

-[빌게이츠재단+ Cannes Lions]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Cannes Lions, One Show New York, London International Awards,

New York Festival 등 Global Creative Festival 수상,

심사위원 및 Speaker 초빙

